

2016년 국가직 7급 국어 기출문제 및 해설

문 1. 밑줄 친 단어 중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대화는 열기를 띄기 시작했다.
- ②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
- ③ 아침에 찌은 쌀이라서 밥맛이 정말 고소하군요.
- ④ 아침부터 오던 비가 개이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정답) ②

해설) ② ‘깃들이다’가 기본형인 동사로 한글 맞춤법에 맞다.

- ① ‘띄다’는 ‘뜨이다, 표시나다’는 뜻이고, ‘떠다’는 ‘가지다, 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①번 예문에서는 ‘띄기’로 써야 한다.
- ③ ‘찌다’가 기본형이므로 ‘찢’으로 써야 한다.
- ④ ‘날씨가 개다’와 같이 ‘개이다’가 아닌 ‘개다’로 써야 한다. 비슷한 예로 ‘설레이는 → 설레는, 목 메이는 → 목 메는, 살을 에이는 → 살을 에는’ 등이 있다.

문 2.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솜이불[솜:니불]
- ② 직행열차[지캐열차]
- ③ 내복약[내:봉낙]
- ④ 막일[망닐]

정답) ②

해설) 표준발음법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따라서 ①번의 솜이불은 [솜:니불]로, ②번의 직행-열차는 [지캐열차]가 아닌 [지캐널차]로 ③번의 내복약은 [내:봉낙]으로, ④번의 막일은 [망닐]로 발음해야 한다.

문 3.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개인적 성품, 공과(功過)를 기록하는 전기(傳記) 형식의 글을 ()이라고 한다. 거북 · 대나무 · 지팡이 · 술 · 돈 따위의 동물이나 식물, 생활에 필요한 물건 같은 사물을 의인화해 그 생애를 서술한다.

- ① 평전(評傳)
- ② 열전(列傳)
- ③ 가전(假傳)
- ④ 실전(實傳)

정답) ③

해설) ③ 가전(假傳):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傳記)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 고려 중기 이후에 성행하였으며, 임춘(林椿)의 <국순전>, <공방전>이나 이규보(李奎報)의 <국선생전>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 ① 평전(評傳): 개인의 일생에 대하여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
- ② 열전(列傳): 여러 사람의 전기(傳記)를 차례로 벌여서 기록한 책.
- ④ 실전(實傳): 실제의 전승이나 전기.

문 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문장은?

- ① 작가는 작품으로 말할 뿐, 그 밖의 것은 모두 贅언(贅言)에 불과하다.
- ② 한학의 온축(蘊蓄)을 문학작품의 창작으로 승화시켰다.
- ③ 습작 활동을 오래도록 한 일은 그의 치밀한 성격을 야기(惹起)하였다.
- ④ 귀국한 동생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단취(團聚)가 실현되었다.

정답) ③

해설) ③ 야기(惹起)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킨다는 뜻이므로 야기(惹起)보다는 초래(招來)를 쓰는 것이 적당하다. 초래(招來):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함.

- ① 贅언(贅言):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 ② 온축(蘊蓄): 오랫동안 학식 따위를 많이 쌓음
- ④ 단취(團聚): 집안 식구나 친한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한자리에 모임.

문 5.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날씨가 내일부터 누그러져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② 내가 유학을 떠날 때, 친구가 소개시켜 준 학교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다.
- ③ 1반 축구팀은 불안한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2반 축구팀에 패배하였다.
- ④ 방송 장비를 휴대한 트럭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합니다.

정답) ①

해설)

- ② ‘소개시키다’에서 ‘시키다’는 ‘하다’로 바꿀 수 있으면 틀린 표현이다. 따라서 ‘친구가 소개해 준~’으로 고쳐야 한다.
- ③ ‘와’를 중심으로 단어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불안한 수비가 미숙하고 문전 처리가 미숙하다’가 되어 매끄럽지 못하므로 ‘수비가 불안하고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정도로 고치는게 연결이 매끄럽다.
- ④ 트럭이 상황을 중계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주어와 서술어 간에 연결이 맞지 않다.

문 6. ㉠~㉢의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春去花猶在 ㉠天晴谷自陰 杜鵑啼白晝始覺㉡卜居深	- 李仁老, 山居 -
(나)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	
- 王維, 送元二使安西 -	

- ① ㉠:날이 개다.

- ② ㉠:사는 곳이 깊다.
 ③ ㉡:버드나무 빗갈이 새롭다.
 ④ ㉢:돌아가신 분.

정답) ④

해설) (가)작품은 이인로의 ‘산거’ 작품으로 초여름 새울음소리를 들으며 깊은 산 속에서 살아가는 시인의 담담한 서정을 잘 그려낸 작품이다.

(가)작품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봄은 가도 꽃은 외려 남아 있고, 날이 개도 골짜기는 그늘에 가렸네.
 두견새가 대낮에도 우는 것을 보니, 내가 사는 곳이 깊은 곳임을 비로소 알겠네

(나)작품은 왕유가 멀리 변방으로 출사(出使)하는 벼슬 떠나보내며 부른 노래이다. 즉, 안서로 떠나는 원이를 전송하며 부른 노래이다.

(나)작품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위성에 내린 아침 비는 먼지를 적실 정도로 가벼히 오고
 객사 주변 버드나무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았네
 그대에게 권하노니 술 한잔 더 하시게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아는 이가 없을 걸세

따라서 ④번의 고인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를 뜻한다.

문 7. ㉠~㉢에 들어갈 한자 성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그는 고집이 어찌나 센지 한번 결심하면 (㉠)이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은 (㉡)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 아무리 (㉢)한 인물이라도 좋은 동료로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 | ㉠ | ㉡ | ㉢ |
|--------|------|------|
| ① 搖之不動 | 間於齊楚 | 蓋世之才 |
| ② 搖之不動 | 看於齊楚 | 改世之才 |
| ③ 擾之不動 | 間於齊楚 | 改世之才 |
| ④ 擾之不動 | 看於齊楚 | 蓋世之才 |

정답) ①

해설) ㉠ 搖之不動(요지부동): 흔들어도 꿈적도 하지 않음

㉡ 間於齊楚(간어제초):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 즉 약자가 강자들 틈에 끼어서 괴로움을 겪음을 이르는 말.

㉢ 蓋世之才(개세지재): 세상을 뒤덮을 만큼 뛰어난 재주, 또는 그 재주를 가진 사람

정답 이외의 한자들은 음이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 ㉠의 ③④번은 搖(흔들 요)가 아닌 擾(시끄러울 요)가 쓰였고, ㉡의 ②④번은 間(사이 간)이 아닌 看(볼 간)이 쓰였으며, ㉢의 ②③번은 蓋(덮을 개, 뛰어날 개)가 아닌 改(고칠 개)가 쓰였다.

문 8. ㉠~㉣의 표제어에 적합한 한자 표기는?

㉠ 유세: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
㉡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금전.
㉣ 답본: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냄.

- | | | |
|------|----|----|
| ㉠ | ㉡ | ㉣ |
| ① 遊說 | 徂歲 | 拓本 |
| ② 遊說 | 租稅 | 搨本 |
| ③ 誘說 | 徂歲 | 搨本 |
| ④ 誘說 | 租稅 | 拓本 |

정답) ②

해설) 遊說(유세), 租稅(조세), 搨本(답본)

나머지 한자들은 誘說(유세): 달콤한 말로 달래어 꺾, 徂歲(조세): 지나간 해를 뜻하는 조년(徂年)과 같은 뜻, 拓本(탁본): 금석에 새긴 글씨나 그림을 그대로 종이에 박아냄을 뜻한다.

문 9. 우리말과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라매’와 ‘수라’는 몽고어에서 유입된 말이다.
- ② 모음조화 현상은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 ③ 15세기부터 주격 조사 형태 ‘가’가 나타나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 ④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가 나타난다.

정답) ③

해설) 주격 조사 ‘가’는 17세기 근대 국어에서 나타나서 사용되었다.

문 10. 다음 글에서 ‘신(臣)’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臣)이 부영(傅榮)에게 말하였습니다. “수차(水車)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수차를 보았습니까?” “지난번 소흥부(紹興府)를 지날 때, 어떤 사람이 호수 언덕에서 수차를 돌려 논에 물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을 적게 들이면서 물을 많이 퍼 올리더군요. 가뭄에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차는 물을 푸는 데만 사용될 뿐이니 배울 것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는 논이 많은데 자주 가뭄이 들지요. 만약 수차 만드는 법을 배워 우리 백성에게 가르쳐 준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조금만 수고해 가르쳐 주면, 우리 백성 대대로 큰 이익이 생길 것이요. 그 제작법을 잘 알아보시되 모자란 점이 있으면 뱃사람들에게 물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최부, 표해록 -

- ① 공리공론(空理空論)
- ② 실사구시(實事求是)
- ③ 이용후생(利用厚生)
- ④ 주권재민(主權在民)

정답) ③ 이용후생(利用厚生):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

해설) '수차 만드는 법을 배워 우리 백성에게 가르쳐 준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조금만 수고해 가르쳐 주면, 우리 백성 대대로 큰 이익이 생길 것이오.'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① 공리공론(空理空論): 실천이 따르지 아니하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 ②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공리공론을 떠나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객관적 학문 태도를 이룬 것.
- ④ 주권재민(主權在民):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문 11. 전화를 사용할 때, 표준 언어 예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녜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 ②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 ③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 ④ 잘 알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답) ①

해설) 잘못 걸려온 전화는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예절에 맞다. '잘못 거셨습니다.'는 표현은 상대방이 전화도 제대로 못 거냐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문 12. 다음 광고 문안에 포함된 담화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 선풍기는 바람을 차게 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방 안에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물건이 와 닿으면 소리가 나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일 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즉시 새 물건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 ① 호소 기능 ② 정보 제공 기능 ③ 약속 기능 ④ 오락 기능

정답) ④ 오락 기능: 위 광고 문안에는 오락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설) ① 호소 기능: 광고 문안 자체가 물품을 구입하게끔 유도하므로 호소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② 정보 제공 기능: 바람을 차게, 사람이 없으면 멈추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③ 약속 기능: 일 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새 물건으로 교환해 준다고 약속 하고 있다.

문 13.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욕은 공격성의 표현이자, 말로 하는 폭력이다. 아이가 욕을 배워 친구 앞에서 욕을 하는 것은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이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이다.

(가) 그들이 집회에서 내뱉는 폭언은 자신들과 기성세대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행동 양식이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독자성을 가진 집단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나) 그러나 욕은 특수 용어가 아니다. 특수 용어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고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분명하게 한다. 언어 그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욕과 같은 추한 말은 언어를 저하시키고 못쓰게 만든다.

(다) 1968년 이탈리아에서 학생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 학생들이 귀에 담기에 힘든 폭언을 내뱉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자신들은 규범을 깨뜨릴 것이며 이제 기성세대에, 국가 권력에 따르지 않겠다는 성명이었다. 학생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놀라서 그 자리에 못이 박히고 말았다. 입만 열면 욕설이 난무하는 집단 속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바보나 멍청이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흥내를 내며 학생들 편에 설 수도 없었다.

(라) 어떤 집단이나 직업에도 특수한 말이 있다. 의사, 변호사, 공증인 등 이들이 외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은 동료 간의 의사소통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 확실히 구별을 짓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가 특수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말을 쓰면 그 분야 사람들은 화를 낸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① (다) - (가) - (나) - (라)

② (다) - (가) - (라) - (나)

③ (라) - (나) - (가) - (다)

④ (라) - (나) - (다) - (가)

정답) ②

해설) 첫 문장인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이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이다.’ 다음에 (다)의 첫 문장인 ‘학생들이 귀에 담기에 힘든 폭언을 내뱉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가 연결된다. 또한 (가)의 첫 문장인 ‘그들이 집회에서 내뱉는 폭언은’이 (다)글 뒤에 매끄럽게 연결된다. (라)에서 ‘특수 용어’를 언급하고 난 뒤 (나)에서 욕은 특수 용어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순서는 (다) - (가) - (라) - (나)가 문맥에 맞다.

문 14. ‘고공’이 조정의 신하를 비유한다고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의 옷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살림살이 하려 할 때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田畓)을 기경(起耕)하니
 올벼논 텃밭이 ㉠여드레 같이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여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이 아주 없어
 밥 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것 하는가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時節)조차 사나워
 가뜩이나 내 세간이 줄어지게 되었는데
 엇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產)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느냐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으려무나
 - 허전, 고공가(雇工歌) -

- ① ㉠:태조 이성계
- ② ㉡:조선 팔도
- ③ ㉢:임금
- ④ ㉣:왜적

정답) ③

해설) ㉢의 호수는 임금이 아니라 머슴들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 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벽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켜기었다. -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빼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거르렁거르렁하였다.
 …(중략)…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하는 말끝엔 목이
 메이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인다. 문득 김 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부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 ①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이 나타나 있다.
- ②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 ③ 객관적인 서술 태도로 인물의 행동만을 그리고 있다.
- ④ 행운과 불안감이 교차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객관적인 서술 태도가 아니라 인물의 심리 묘사까지 하는 주관적 서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1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 -

- ① 죽음에 대해 달관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4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미련도 집착도 없는 무욕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독백적인 어조로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이 작품은 3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文學教育論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반면, 이를 저해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그 같은 움직임은 주로 文學教育이 강화되면 國語科教育이 陳腐한 敎訓을 앞세운 道德主義修身敎科로 轉落될지 모른다가나 혹은 文學少年 少女의 感傷癖을 만연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國語科를 언어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려는 견해다. 이들의 주장인즉, “文學活動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言語活動 중의 한 類型에 불과하며, 文學作品이 國語科의 敎材로 많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어휘량이 많고 문장 표현의 양상이 다채롭다는 조건뿐이다. 文學이 國語教育의 核心은 될 수 없다. 國語教育은 어디까지나 言語教育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다루면서 왜 言語技能의 形式陶冶에만 그치고 그 본질적 가치는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명분이 선명치 않다. 이것은 분명히 언어의 본질을 用具的, 提報的인 것으로만 보고 感化的인 것을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유래한다.

- ① 문학을 언어활동의 도구로만 보려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도덕주의를 중시하는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③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 ④ 국어교육은 언어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이 글은 문학교육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 의견 중 특히 언어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려는 견해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다.

문 18. ㉠~㉣의 문장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아이의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흐린 게 비가 올런지 몰라 우산을 미리 챙겨 나갔다. ㉡길을 나서자 갑자기 곧 해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장 입구에는 앓된 소녀들이 우산을 들고 왁자지껄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소녀들의 모습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던 기억이 두루뭉술하게 떠올랐다.

- ① ㉠의 ‘올런지’는 표기법에 맞게 ‘올른지’로 고친다.
- ② ㉡의 ‘해님’은 표기법에 맞게 ‘햇님’으로 고친다.
- ③ ㉢의 ‘앓된’은 표준어에 맞게 ‘앓뎠’으로 고친다.
- ④ ㉣의 ‘두루뭉술하게’는 의미상 자연스럽게 ‘어렴풋이’로 고친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번 모두 고칠 필요가 없다.

④번의 ‘두루뭉술’은 말이나 행동 따위가 철저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뜻이므로 ‘어렴풋이’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 1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나 혹은 이타적이나 하는 이분법적 질문은 흑백 논리를 지양하고 (㉠)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는 그저 지적 호사가들의 관심이나 끝 법한 낡은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 같은 게 실제로 있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을/를 품어볼 수도 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생각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 왔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대한 답변도 대체로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이 맡아 왔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의 원천으로서 인류의 삶에 훌륭한 (㉢)이/가 되어온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간 중심적 사고에 (㉣)되었다는 근원적 한계를 갖는다.

- ㉠ ㉡ ㉢ ㉣
- ① 다원성 의문 전범 착종
 ② 다양성 회의 지침 고착
 ③ 중층성 질문 모범 연루
 ④ 융합성 반문 통찰 편향

정답) ②

해설) ㉠에는 흑백논리와 반대되는 ‘다양성’이 알맞고, ㉡에는 의심을 품는 다는 뜻의 ‘회의’가, ㉢에는 ‘지침’이, ㉣에는 고착(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음)이 들어가야 알맞다.

문 20.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페니실린은 약품으로 정제된 이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세균과 질병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생제 사용이 잦아지자 세균들이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항생제는 사람에게는 해를 주지 않으면서 세균만 골라 죽이는 아주 유용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이겨내는 세균들이 계속 등장했다. 플레밍 또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페니실린에 내성인 세균이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었다.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이 곧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여 감염증을 치료하려는 인류와,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여 생존하려는 세균 간의 전쟁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세균은 인류가 개발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추어 맞서고, 인류는 내성을 가진 세균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 반격을 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은 메티실린 제제가 개발되면서 치료의 길이 열렸다. 메티실린은 포도상 구균을 물리치며 맹활약했지만 세균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메티실린의 효과가 듣지 않는 강력한 세균들이 등장했고, 이에 인류는 반코마이신을 개발해 탈출구를 열었다. 이들 치료제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그람 음성 세균은 카바페넴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최강의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내성을 획득한 다제 내성균(슈퍼 박테리아)도 등장했다.

- ① 인류는 더 강력한 세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② 항생제 사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③ 인류는 다제 내성균을 치료할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다.
 ④ 앞으로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이 나타날 것이다.

정답) ③

해설) 첫 단락과 두번째, 세번째 단락 모두 ‘항생제 사용→세균이 내성을 가짐→또 다른 항생제 개발’이 반복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에서 다제 내성균이 등장했다는 말 뒤에 또 다른 항생제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